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I. 들어가며	1
II.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특성	1
III. 인도 사례와 비교	15
IV. 결론 및 시사점	18

작성 : 책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안상술 (3779-6670)
ssahn@koreaexim.go.kr

< 요약 >

□ 서비스 산업의 무역규모는 전체 수출입의 13~20% 수준

- 전통적으로 내수산업으로 인식되어 무역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 그러나 전체 수입에서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상품 수출액과 서비스 수출액은 각각 3736억 달러, 585억 달러로 서비스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 13.5% 규모에 해당
- 동 기간 상품 수입액과 서비스 수입액은 각각 4273억 달러, 939억 달러로 서비스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약 19.3% 수준으로 비중 확대

□ 우리나라 고용의 63.4%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

- 2007년 우리나라의 피용자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63.4%(8,492천명)로 가장 크고, 제조업 22.4% (2,999천명), 건설업 12.1%(1,628천명), 농림어업 1.4%(194천명) 순
- 주요국과 비교할 때 미국(77.7%), 일본(67.9%), 독일(67.9%), 이탈리아 (65.7%), 네덜란드(77.7%) 등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
-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 감소 요인이 큰 반면, 서비스는 산출액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과 비교할 때 서비스 업종 대부분의 경쟁력은 매우 낮음

-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선진국의 서비스 수지는 높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은 서비스 수지 적자 기록
- 2000~2007년 평균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60,765/명으로 OECD국가들 가운데 11위인 반면 서비스산업은 \$33,233/명으로 25개국 가운데 22위 수준

□ 서비스 산업은 연 100~200억 달러 무역적자를 꾸준히 기록, 상품 교역을 통해 쌓은 전체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여오는 역할을 해옴.

-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 172억 달러의 90% 이상을 사업서비스 부문이 차지. 사업서비스 가운데에서는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 부문 적자가 대부분으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62% 차지.

-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의 적자폭 확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진출시장에 대한 글로벌 사업 서비스 이용이 높아졌기 때문.
 - 해외 사업관련 서비스는 기업경쟁력과 연관, 단시간에 수입대체·수출증가 어려움.
-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의 서비스화를 진전시킨 인도의 경우,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 아웃소싱의 확산,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IT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비약적 발달을 이룸
- 인도의 경우 취약한 국내 수요 때문에 일찌감치 대외지향 성장전략 추구. 인도 정부는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와 같은 교육기관에 컴퓨터 과학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인적 자본 축적 외에 수요 창출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었음.
 - 반면 인도는 수학과 공학을 중시하는 전통 아래 풍부한 영어 skill을 지닌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
 - 인도의 사례는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념과는 달리, 내수기반과는 별도로 국제화된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서비스산업의 기술이 주로 인적 자원 자체에 내재된다는 특수성을 반영해 인적자원의 육성 등에 더 초점을 가하는 것이 필요.
-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한 시사점
- 현재 서비스 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서비스의 경우 기업의 해외투자와 연결되어 단시간에 수지 개선 어려움
 -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의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 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 언어, 인력양성 등의 문제로 단시간에 해결될 수는 없음.
 - 반면 인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이 덜한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국제화된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는 더 유리할 수 있음
 - 그러한 분야로 주문화콘텐츠 분야 중요. 최근 수출도 향상되고 있고,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우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 제조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수출 지원 프로세스도 제조업 지원책과 유사할 수 있음.

I. 들어가며

-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제조업을 보완할 신성장산업의 발굴이 절실해짐.
- 이러한 가운데 국내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이 내수 산업만이 아닌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서비스 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이 가운데 당행의 지원 가능 분야인 문화 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성장동력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산업 전체 현황에 대한 조감 및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후 보고서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영화산업과 게임산업의 시장 및 투자상황, 그리고 수출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을 예정

II.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특성

1. 서비스 무역의 현황과 특징

- 전통적으로 내수산업으로 분류되어 온 서비스산업의 무역규모는 전체 수출입의 13~20% 수준
-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은 내수산업으로 인식되어 상품에 비해 무역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에서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상품 수출액과 서비스 수출액은 각각 3736억 달러, 585억 달러로 서비스 수출액이 상품 수출액의 약 15% 규모에 해당
 - 1990년 상품과 서비스의 전체 수출액에서 13.1%를 차지했던 서비스 수출액은 2008년에 15.1%까지 늘었다가 2009년에는 13.5%로 다시 줄어듦.
- 동 기간 상품 수입액과 서비스 수입액은 각각 4273억 달러, 939억 달러로 서비스 수입액은 상품 수입액의 약 22% 수준

- 1990년 상품과 서비스의 전체 수입액에서 13.4%를 차지했던 서비스 수입액은 2009년에는 전체 수입액에서 19.3%로 비중 확대

□ 서비스 수지는 연 100~200억 달러 적자를 꾸준히 기록, 상품 및 서비스 수지의 흑자폭을 줄여 옴

- 2004년 이후 상품 수지는 약 300억 달러 내외 흑자, 서비스 수지는 100~2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옴.
- 2009년의 경우 금융 위기의 여파로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어 상품수지의 경우 561억 달러라는 높은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수지의 경우 172억 달러 적자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상품 수출입과 비교할 때 서비스 수출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품수지와는 달리 적자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 제외), 2004년을 기점으로 상품수지의 흑자폭도 줄어들고 있어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음.
-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의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아도 서비스 수출은 7.5%로 상품 수출 증가율(8.7%)보다는 하회하고, 서비스 수입은 9.5%로 상품 수입 증가율(8.0%) 보다 상회해 수지 악화를 초래

표1.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경상 수지	상품			서비스		
		수지	수출 (FOB)	수입 (FOB)	수지	수출 (수입)	수입 (지급)
2000	12,250.8	16,953.6	176,220.5	159,266.9	-2,847.8	30,533.6	33,381.4
2001	8,032.6	13,488	151,478.3	137,990.3	-3,872.1	29,054.9	32,927
2002	5,393.9	14,777.4	163,414	148,636.6	-8,197.5	28,387.7	36,585.2
2003	11,949.5	21,952	197,289.2	175,337.2	-7,424.2	32,956.5	40,380.7
2004	28,173.5	37,568.8	257,710.1	220,141.3	-8,046.1	41,881.5	49,927.6
2005	14,980.9	32,683.1	288,970.7	256,287.6	-13,658.2	45,129.4	58,787.6
2006	5,385.2	27,905.1	331,842	303,936.9	-18,960.7	49,890.8	68,851.5
2007	5,876	28,168	379,045.1	350,877.1	-19,767.6	63,348.6	83,116.2
2008	-5,776.3	5,669.1	432,922.3	427,253.2	-16,671.5	77,179.5	93,851
2009	42,667.6	56,127.6	373,584.4	317,456.8	-17,202.7	58,512.8	75,715.5
연평균증가율			8.7%	8.0%		7.5%	9.5%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2. 서비스 세부 산업별 무역수지 현황과 특징

□ 사업서비스 부문의 적자가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90% 이상 차지

- 서비스 산업을 세부 산업으로 나누면 운수,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그리고 정부 서비스 등으로 나뉨.
- 이 가운데 문화콘텐츠 서비스는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부분과 대부분 일치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
- 이 가운데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운수(2009년 기준 56억 달러), 금융(동기간 16억 달러), 정부 서비스(4.7억 달러) 밖에 없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적자
- 건설 서비스의 경우 2008년까지는 줄곧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8년부터 건설 서비스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09년 적자로 전환
- 건설 서비스 지급액에는 해외 건설업을 할 때 제공하는 다양한 용역과 재화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데, 건설용 자재를 운반하거나 해외 용역을 쓰는 것, 기타 건설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는 것도 모두 건설 서비스 지급에 포함됨. 2007~2008년 해외 플랜트 수주가 급증한 결과, 2008~2009년의 실제 건설 시공이 늘어나면서 건설업에 쓰인 재화와 용역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늘어남.
- 2009년의 경우 전체 서비스 수지 172억 달러 적자 가운데 사업서비스(△158억 달러), 여행서비스(△38.9억 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38.6억 달러)의 적자폭이 가장 크며, 특히 사업서비스 분야의 적자폭이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91% 차지
- 2007년까지는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 가운데 여행서비스 적자가 70~8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8년부터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85~90% 이상을 차지
- 특히 사업서비스 가운데에서는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의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는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 컨설팅, 법률 서비스 외에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까지 포함하는 분야로, 이 분야의 수출(수입)은 73억 달러, 수입(지급)은 180억 달러로 적자가 107억 달러에 달해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 172억 달러의 62%를 차지.

- 이렇게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진출 시장에 대한 글로벌 사업 서비스 이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해외투자 증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

표2. 서비스산업 분야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품 및 서비스 수지	14,105.8	9,615.9	6,579.9	14,527.8	29,522.7	19,024.9	8,944.4	8,400.4	-11,002.4	38,924.9
-상품수지	16,953.6	13,488.0	14,777.4	21,952.0	37,568.8	32,683.1	27,905.1	28,168.0	5,669.1	56,127.6
-서비스수지	-2,847.8	-3,872.1	-8,197.5	-7,424.2	-8,046.1	-13,658.2	-18,960.7	-19,767.6	-16,671.5	-17,202.7
-운수	2,638.9	2,137.5	1,914.5	3,566.8	4,874.6	3,732.9	2,674.2	4,480.5	7,998.0	5,574.6
-여행	-297.6	-1,233.0	-4,528.8	-4,744.6	-6,281.2	-9,600.3	-13,062.7	-15,836.9	-9,291.7	-3,887.9
-통신	-235.2	-344.3	-307.6	-351.7	-190.1	-330.1	-369.6	-365.9	-425.0	-445.2
-건설	13.3	66.6	15.7	23.5	95.6	104.5	130.0	116.7	144.9	-96.8
-보험	-77.8	-313.8	-533.7	-356.3	-322.5	-564.0	-580.3	-585.4	-277.4	-272.8
-금융	513.6	449.8	625.4	597.4	956.6	1,415.8	1,995.6	3,304.4	3,094.7	1,597.4
-컴퓨터 및 정보	-81.2	-87.5	-104.8	-104.0	-131.5	-125.8	-349.6	-203.7	-267.8	-169.9
-특허권 등 사용료	-2,533.0	-2,129.4	-2,166.9	-2,258.8	-2,584.8	-2,652.4	-2,604.8	-3,398.7	-3,274.1	-3,864.2
-사업서비스	-3,128.3	-2,848.7	-3,601.8	-4,362.1	-5,037.4	-6,115.2	-7,172.6	-7,408.5	-14,279.4	-15,793.2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23.3	-67.9	-98.5	-185.1	-248.1	-209.2	-301.9	-481.6	-363.9	-316.5
-정부서비스	362.8	498.6	589.0	750.7	822.7	685.6	680.9	611.5	270.2	471.8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 세부 산업별 수출입 추이

- 서비스 산업의 세부 항목별 수출입 추이를 살펴 보면, 2001년 이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서비스 전체(9.1%)보다 높은 분야는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39.0%), 금융(26.3%), 보험(20.6%), 개인·문화·오락(17.9%), 특허권 및 심사료(16.7%), 운수(10.3%) 등이 해당함.
- 특허권 및 심사료의 경우 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5%로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다음으로 적자 폭이 크지만 우리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수입도 지난 10년간 매우 크게 늘어 났음.
- 반면 2001년 이후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서비스 전체(11%)보다 높은 분야는 건설(42.4%), 금융(32.5%), 개인·문화·오락(19.5%),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18.2%), 사업 서비스(14.5%) 등이 해당함.

표3. 서비스 산업 세부항목별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서비스 전체	수지	-3,872.1	-8,197.5	-7,424.2	-8,046.1	-13,658.2	-18,960.7	-19,767.6	-16,671.5	-17,202.7	
	수출	29,054.9	28,387.7	32,956.5	41,881.5	45,129.4	49,890.8	63,348.6	77,179.5	58,512.8	9.1%
	수입	32,927.0	36,585.2	40,380.7	49,927.6	58,787.6	68,851.5	83,116.2	93,851.0	75,715.5	11.0%
운수	수지	2,137.5	1,914.5	3,566.8	4,874.6	3,732.9	2,674.2	4,480.5	7,998.0	5,574.6	
	수출	13,180.2	13,215.5	17,179.8	22,529.4	23,876.9	25,807.0	33,556.0	44,767.8	28,939.4	10.3%
	수입	11,042.7	11,301.0	13,613.0	17,654.8	20,144.0	23,132.8	29,075.5	36,769.8	23,364.8	9.8%
여행	수지	-1,233.0	-4,528.8	-4,744.6	-6,281.2	-9,600.3	-13,062.7	-15,836.9	-9,291.7	-3,887.9	
	수출	6,384.0	5,935.7	5,358.2	6,069.0	5,805.6	5,787.8	6,138.4	9,773.5	9,442.0	5.0%
	수입	7,617.0	10,464.5	10,102.8	12,350.2	15,405.9	18,850.5	21,975.3	19,065.2	13,329.9	7.2%
통신	수지	-344.3	-307.6	-351.7	-190.1	-330.1	-369.6	-365.9	-425.0	-445.2	
	수출	397.5	377.7	341.2	445.6	443.0	642.2	547.2	723.9	654.6	6.4%
	수입	741.8	685.3	692.9	635.7	773.1	1,011.7	913.1	1,148.9	1,099.8	5.0%
건설	수지	66.6	15.7	23.5	95.6	104.5	130.0	116.7	144.9	-96.8	
	수출	81.7	39.3	37.2	99.2	110.5	133.4	128.1	278.3	157.9	8.6%
	수입	15.1	23.6	13.7	3.6	6.0	3.4	11.4	133.2	254.7	42.4%
보험	수지	-313.8	-533.7	-356.3	-322.5	-564.0	-580.3	-585.4	-277.4	-272.8	
	수출	60.1	36.9	34.0	138.7	168.7	273.7	414.7	466.3	389.0	26.3%
	수입	373.9	570.6	390.3	461.2	732.7	854.0	1,000.1	743.7	661.8	7.4%
금융	수지	449.8	625.4	597.4	956.6	1,415.8	1,995.6	3,304.4	3,094.7	1,597.4	
	수출	532.7	694.9	698.5	1,083.1	1,650.9	2,543.0	4,000.5	3,785.3	2,382.6	20.6%
	수입	82.9	69.5	101.1	126.5	235.1	547.4	696.1	690.6	785.2	32.5%
컴퓨터 ·정보	수지	-87.5	-104.8	-104.0	-131.5	-125.8	-349.6	-203.7	-267.8	-169.9	
	수출	16.1	19.5	29.7	25.3	57.1	248.2	340.2	303.7	224.2	39.0%
	수입	103.6	124.3	133.7	156.8	182.9	597.8	543.9	571.3	394.1	18.2%
특허권 사용료	수지	-2,129.4	-2,166.9	-2,258.8	-2,584.8	-2,652.4	-2,604.8	-3,398.7	-3,274.1	-3,864.2	
	수출	923.5	835.3	1,311.2	1,861.1	1,908.4	2,045.6	1,735.1	2,381.6	3,184.8	16.7%
	수입	3,052.9	3,002.2	3,570.0	4,445.9	4,560.8	4,650.4	5,133.8	5,655.7	7,049.0	11.0%
사업 서비스	수지	-2,848.7	-3,601.8	-4,362.1	-5,037.4	-6,115.2	-7,172.6	-7,408.5	-14,279.4	-15,793.2	
	수출	6,388.4	6,005.5	6,687.3	8,125.1	9,422.3	10,532.1	14,420.6	12,965.4	11,413.6	7.5%
	수입	9,237.1	9,607.3	11,049.4	13,162.5	15,537.5	17,704.7	21,829.1	27,244.8	27,206.8	14.5%
개인, 문화, 오락	수지	-67.9	-98.5	-185.1	-248.1	-209.2	-301.9	-481.6	-363.9	-316.5	
	수출	138.3	184.8	76.2	128.0	267.8	368.6	447.7	527.5	515.6	17.9%
	수입	206.2	283.3	261.3	376.1	477.0	670.5	929.3	891.4	832.1	19.1%
정부 서비스	수지	498.6	589.0	750.7	822.7	685.6	680.9	611.5	270.2	471.8	
	수출	952.4	1,042.6	1,203.2	1,377.0	1,418.2	1,509.3	1,620.1	1,206.4	1,209.1	3.0%
	수입	453.8	453.6	452.5	554.3	732.6	828.4	1,008.6	936.2	737.3	6.3%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주: 수출의 경우 (사용료) 수입, 수입의 경우 (사용료) 지급에 해당

- 문화콘텐츠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부문은, 2001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17.9%, 수입은 19.1% 증가해 수출입 모두 서비스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고르게 증가한 분야라 할 수 있음.
-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수지는 2009년 기준 3.2억 달러 적자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로 그리 크지 않으나, 2004~2005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0년의 13배로 증가.
- 개인·오락·문화 서비스와 여행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 산업

들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진출이 늘어날수록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분야들로, 대부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아 단시간에 수입을 줄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사업 서비스, 특허권 및 사용료, 통신 서비스, 보험 서비스에 대한 등이 모두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긴밀히 연관된 분야임.
- 따라서 수지에서 드러나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특성은 단지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용이 늘어나는 여가성 서비스 (여행업, 개인·오락·문화 서비스 등)의 증가로 인한 적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업의 해외 활동 확대에 의한 해외 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적자 심화가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해외 사업 관련 서비스는 수입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수출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음.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사업 서비스 이용 비중을 줄이고 이 분야의 국내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입이 발생하는 여가성 서비스 산업 (여행업, 개인·오락·문화 서비스 등) 들의 수출을 늘려 가는 것이 수지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

□ 우리나라 고용의 63.4%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

- 2007년중 우리나라의 피용자(man-year 기준) 13,400천명을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3.4%(8,492천명)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22.4%(2,999천명), 건설업 12.1%(1,628천명), 농림어업 1.4%(194천명)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중에서는 교육 및 보건(14.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2.6%), 도소매(10.1%),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4.4%), 수송장비(3.1%)의 비중이 각각 크게 나타남

- 산업별 피용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는 2000년 60.4%에서 2007년 63.4%로 지속 상승한 반면 제조업은 2000년 26.1%에서 2007년 22.4%로 계속 하락
- 제조업의 경우 섬유 및 가죽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생산시설 해외 이전과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증가가 고용창출 능력 약화를 주도
- 서비스업의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인력확대,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확대, 사교육 지출 확대에 따른 교육서비스(학원) 종사인력의 증가 등에 주로 기인

산업별 고용자(피용자) 추이

단위: 천명,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농 립 어 업	179	(1.7)	174	(1.4)	181	(1.4)	194	(1.4)
광 업	17	(0.2)	16	(0.1)	15	(0.1)	16	(0.1)
제 조 업	2,805	(26.1)	2,917	(23.6)	2,944	(23.0)	2,999	(22.4)
소 비 재 업 중	891	(8.4)	730	(5.9)	705	(5.5)	703	(5.2)
음 식 료 품	208	(1.9)	203	(1.6)	203	(1.6)	202	(1.5)
섬 유 · 가 죽 제 품	445	(4.1)	298	(2.4)	279	(2.2)	273	(2.0)
목 재 · 종 이 제 품	92	(0.9)	89	(0.7)	89	(0.7)	88	(0.7)
인 쇄 · 복 제	42	(0.4)	52	(0.4)	46	(0.4)	56	(0.4)
기 타 제 조 업 제 품	104	(1.0)	87	(0.7)	87	(0.7)	85	(0.6)
기 초 소 재 업 중	724	(6.8)	826	(6.7)	841	(6.6)	871	(6.5)
석 유 · 석 탄 제 품	18	(0.2)	14	(0.1)	17	(0.1)	18	(0.1)
화 학 제 품	310	(2.9)	360	(2.9)	356	(2.8)	358	(2.7)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00	(0.9)	95	(0.8)	93	(0.7)	96	(0.7)
제 1 차 금 속 제 품	108	(1.0)	115	(0.9)	118	(0.9)	128	(1.0)
금 속 제 품	188	(1.7)	241	(2.0)	256	(2.0)	271	(2.0)
조 립 가 공 업 중	1,190	(11.1)	1,361	(11.0)	1,397	(10.9)	1,425	(10.6)
일 반 기 계	285	(2.6)	318	(2.6)	332	(2.6)	340	(2.5)
전 기 · 전 자 기 기	543	(5.0)	597	(4.8)	592	(4.6)	586	(4.4)
정 밀 기 기	57	(0.5)	77	(0.6)	83	(0.6)	81	(0.6)
수 송 장 비	305	(2.8)	369	(3.0)	390	(3.0)	417	(3.1)
전 력 · 가 스 · 수 도	75	(0.7)	69	(0.6)	70	(0.5)	72	(0.5)
건 설 업	1,186	(11.0)	1,563	(12.6)	1,609	(12.6)	1,628	(12.1)
서 비 스	6,488	(60.4)	7,642	(61.7)	7,978	(62.3)	8,492	(63.4)
도 · 소 매	1,170	(10.9)	1,236	(10.0)	1,276	(10.0)	1,352	(10.1)
음 식 · 숙 박	595	(5.5)	655	(5.3)	651	(5.1)	711	(5.3)
운 수 · 보 관	580	(5.4)	659	(5.3)	662	(5.2)	677	(5.1)
통 신 · 방 송	139	(1.3)	148	(1.2)	148	(1.2)	157	(1.2)

금 융 · 보 험	694	(6.5)	545	(4.4)	560	(4.4)	596	(4.5)
부 동 산 · 사 업 서 비 스 *	793	(7.4)	1,389	(11.2)	1,538	(12.0)	1,691	(12.6)
공 공 행 정 · 국 방	675	(6.3)	700	(5.7)	710	(5.5)	725	(5.4)
교 육 · 보 건	1,264	(11.8)	1,690	(13.6)	1,797	(14.0)	1,929	(14.4)
사 회 · 기 타 서 비 스 **	577	(5.4)	619	(5.0)	637	(5.0)	653	(4.9)
전 산 업	10,749	(100.0)	12,381	(100.0)	12,797	(100.0)	13,400	(100.0)

자료: 한국은행

주: * 부동산·사업서비스는 표준산업분류 147. 부동산, 148. 연구기관, 149. 기업내 연구개발, 15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51. 광고, 152. 건축 및 공학관련 서비스, 153. 컴퓨터 관련 서비스, 154. 기타 사업 서비스 포함

** 사회·기타서비스는 표준산업분류 160. 출판서비스, 161. 문화서비스, 162. 오락서비스, 163. 사회단체, 164. 수리서비스, 165. 개인서비스 포함

- 산업별 취업자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감소 요인이 큰 반면, 서비스는 산출액 증가에 의한 증가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6.2%)은 산출액 증가에 의해 6.7% 증가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0.5% 감소.

- 제조업(+1.8%)은 산출액 증가에 의해 6.6% 증가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4.9% 감소

-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방증

- 문화콘텐츠 산업을 포함하는 사회·기타 서비스의 경우 피고용인 65만3천명으로 아직 전체 피고용인 가운데 5%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

- 그러나 고용 증가율로 비교할 때 2000년 이후 제조업 피고용인은 6% 증가한 반면 문화콘텐츠 산업 고용인은 13% 증가해 제조업 전체와 비교할 때 고용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음.

- 서비스업 전체 피고용인은 2000년 대비 약 30% 증가

□ 서비스업 취업 비중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보다 낮음.

- 주요국 취업 구조와 비교할 때 제조업 비중은 17.7%로 미국(12.5%), 일본(16.6%), 네덜란드(12.4%)보다는 높지만 독일(22%), 이탈리아(21%)보다는 낮음.

- 서비스업 비중은 63.5%로 미국(77.7%), 일본(67.9%), 독일(67.9%), 이탈리아(65.7%), 네덜란드(77.7%) 등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

-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

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

주요국 취업구조

단위: 천명,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2007	2006	2007	2007	2007	2007
농 립 어 업	1,749 (9.3)	1,485 (1.0)	4,573 (6.7)	859 (2.3)	924 (4.0)	260 (3.1)
광 업	17 (0.1)	910 (0.6)	38 (0.1)	107 (0.3)	39 (0.2)	9 (0.1)
제 조 업	3,333 (17.7)	19,320 (12.5)	11,267 (16.6)	8395 (22.0)	4,870 (21.0)	1,033 (12.4)
전력·가스·수도	72 (0.4)	838 (0.5)	349 (0.5)	334 (0.9)	139 (0.6)	42 (0.5)
건 설 업	1,691 (9.0)	11,799 (7.7)	5,564 (8.2)	2527 (6.6)	1,955 (8.4)	505 (6.1)
서 비 스 업	11,921 (63.5)	119,694 (77.7)	45,994 (67.9)	25,940 (67.9)	15,259 (65.7)	6,460 (77.7)
전 산 업	18,784 (100.0)	154,047 (100.0)	67,786 (100.0)	38,163 (100.0)	23,222 (100.0)	8,310 (100.0)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업 고용유발 계수 9.1명, 제조업 2.7명

- 2007년중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고용계수* (2005년 불변가격 기준)는 5.8 (명/10억원)로, 건설업이 10.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 9.1명, 광업 5.2명, 농림어업 4.3명, 제조업 2.7명, 전력·가스·수도 1.4명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계수[=비용자 수(명)/산출액(10억원)]는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비용자 수로 노동생산성의 역수 개념

- 따라서 고용계수가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의미

-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 및 보건(14.7명), 도소매(11.5명), 음식 및 숙박(11.3명), 사회 및 기타서비스(10.1명), 제조업의 경우 인쇄·복제(8.1명), 섬유·가죽제품(6.6명)이 각각 높게 나타났음

- 서비스업의 경우 사교육 및 공교육 종사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소 종사자 다음으로는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고용계수가 가장 높음.

- 산업별 고용계수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2000년(4.0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서비스업은 2000년 이후 정체 상태를 나타냄

-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이 그다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음.

산업별 고용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농 립 어 업	4.2	4.1	4.2	4.3
광 업	5.3	5.0	4.8	5.2
제 조 업	4.0	3.0	2.8	2.7
소 비 재 업 종	6.1	4.7	4.5	4.4
음 식 료 품	3.0	2.8	2.8	2.7
섬 유·가 죽 제 품	9.9	7.2	6.6	6.6
목 재·종 이 제 품	5.4	4.6	4.4	4.2
인 쇄 · 복 제	8.8	7.4	6.8	8.1
기 타 제 조 업 제 품	9.9	6.4	5.7	5.3
기 초 소 재 업 종	2.2	2.1	2.0	2.0
석 유·석 탄 제 품	0.2	0.2	0.2	0.2
화 학 제 품	2.8	2.6	2.4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5	4.0	3.6	3.5
제 1 차 금 속 제 품	1.2	1.0	1.0	1.0
금 속 제 품	6.8	5.5	5.5	5.4
조 립 가 공 업 종	5.2	3.4	3.1	2.8
일 반 기 계	6.5	4.6	4.3	3.9
전 기·전 자 기 기	5.6	3.1	2.7	2.4
정 밀 기 기	8.9	6.7	5.8	5.2
수 송 장 비	3.8	2.8	2.7	2.6
전 력 ·가 스 · 수 도	2.2	1.5	1.5	1.4
건 설 업	9.6	10.4	10.7	10.3
서 비 스	10.4	9.2	9.1	9.1
도 · 소 매	14.5	11.6	11.5	11.5
음 식 · 숙 박	12.5	11.5	10.9	11.3
운 수 · 보 관	9.5	8.4	8.2	7.7
통 신 · 방 송	4.5	3.0	2.9	2.9
금 융 · 보 험	9.7	6.2	5.8	5.4
부 동 산·사 업 서 비 스	5.0	6.8	7.1	7.5
공 공 행 정·국 방	13.6	10.2	9.8	9.5
교 육 · 보 건	15.5	14.6	14.5	14.7
사 회·기 타 서 비 스	13.3	10.6	10.4	10.1
전 산 업	7.0	6.1	5.9	5.8

자료: 한국은행

4.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 주요국과 비교할 때 서비스 업종 대부분의 경쟁력은 매우 낮음

- 전체 서비스 수지로 비교할 때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선진국의 서비스 수지는 높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은 서비스 수지 적자 기록
- 미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는 여행, 금융, 특허권, 사업, 개인문화오락 서비스가, 영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는 금융, 사업서비스가 주도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적자는 여행, 사업 서비스, 특허권 사용이,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여행, 운수가 주도

주요국 서비스업종별 서비스 수지 비교 (2007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서비스 수지	-197.7	1150.4	-212.1	783.3	-417.9
-운수	44.8	-183.6	-70.2	-49.3	-102.4
-여행	-158.4	374.7	-171.5	-339.1	-469.9
-통신	-3.7	7.1	-4.7	8.3	-20.8
-건설	1.2	5.6	23.9	3.8	32.4
-보험	-5.9	-324.7	-27.8	93.7	25.7
-금융	33.0	393.4	26.0	577.7	40.9
-컴퓨터 및 정보	-2.0	-20.9	-26.3	82.3	4.5
-특허권 사용	-34.0	575.7	65.6	50.4	-23.4
-사업서비스	-74.1	343.5	-19.2	357.0	68.3
-개인문화오락	-4.8	139.4	-11.6	18.5	-17.2
-정부	6.1	-159.6	3.7	-20.1	44.0

자료: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2009)

□ RCA 지수도 다소 하락, 국제경쟁력 후퇴

- 2007년 중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0.72로 2000년 (0.74)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다소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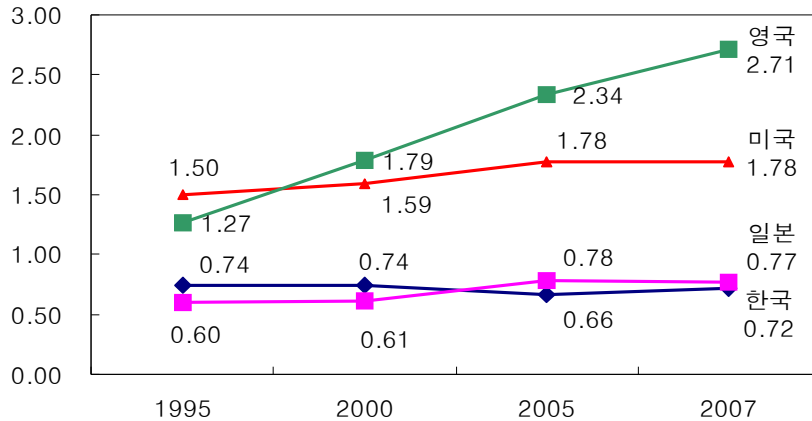
※ 현시비교우위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 : 세계 총수출에서 특정 품목의 세계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 국가의 총수출에서 특정 품목의 총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간의 비율로 측정

$$RCA \text{ 지수} = \frac{X_{ij}/X_i}{X_j/X} = \frac{i\text{국 } j\text{재 수출액}/i\text{국 총수출액}}{\text{세계 } j\text{재 수출액}/\text{세계 총수출액}}$$

(X_{ij} : i 국의 j 재 수출, X_i : i 국의 총수출, X_j : j 재 총수출, X : 세계 총수출)

※RCA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 산업으로, 1보다 작으면 비교 열위 산업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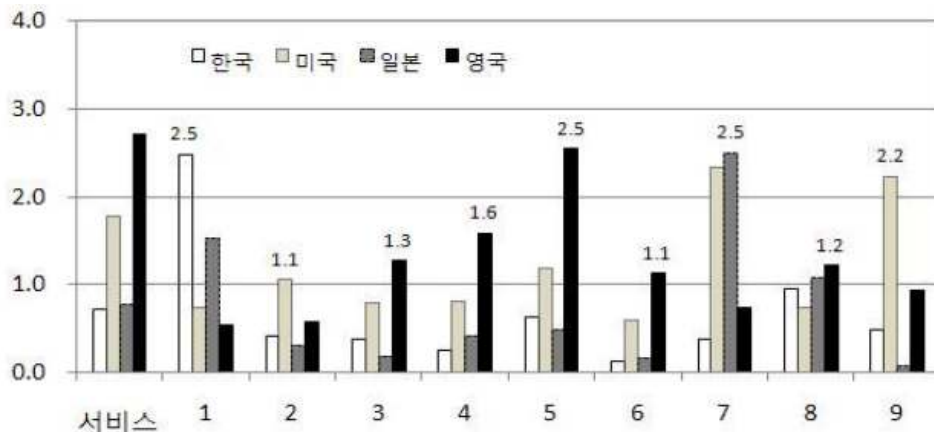
서비스 산업 RCA지수 추이



자료: OECD STAN database,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한국은행(2009)에서 재인용

- 미국과 영국은 계속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동 기간 비교 열위가 완화됨.
- 서비스 업종별 RCA 지수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운수 부문에서만 비교우위를 보이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비교열위를 보임.
- 문화콘텐츠 산업이 대부분인 개인문화오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RCA 지수는 0.5 정도로 비교 열위이고, 미국은 2.2로 매우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음.

2007년중 서비스 업종별 RCA 지수



1.운수, 2.여행, 3.통신, 4.보험, 5.금융, 6.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7.특허권 사용, 8.사업서비스, 9.개인문화오락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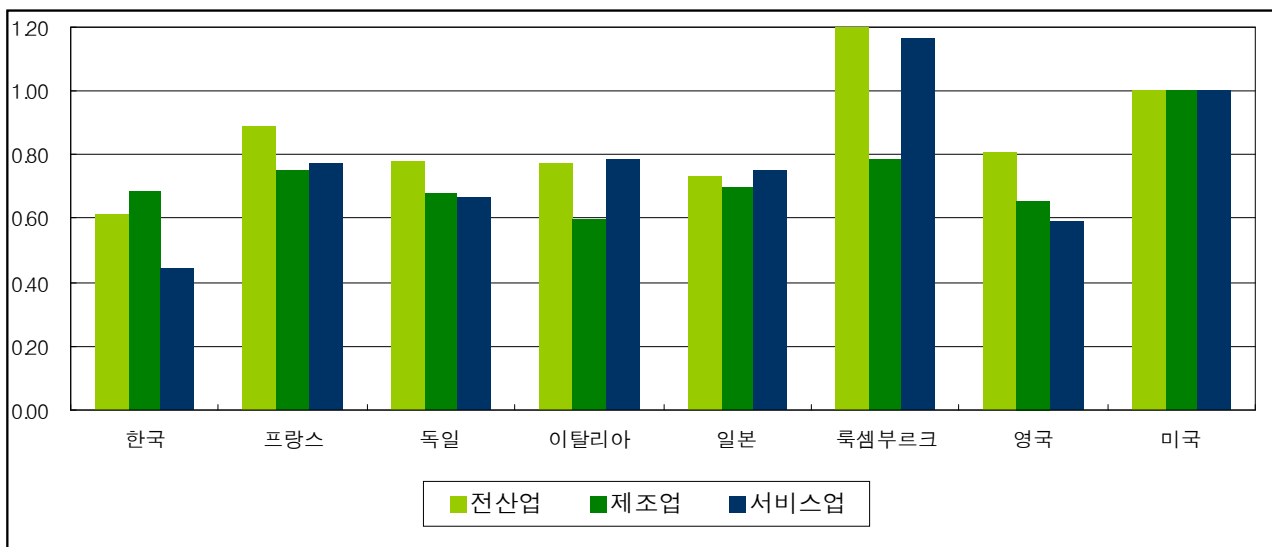
자료: OECD STAN database,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한국은행(2009)에서 재인용

□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저조, 해외와 비교해도 취약

- 서비스산업의 경우 노동력 투입 위주의 생산구조,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생산·판매구조 등의 본원적 특징으로 인하여 기술발전에 한계가 있고 표준화에 의한 대량생산이 제한되어 있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의 수준이 낮은 것이 일반적
- 그러한 점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미국의 수준을 1로 하여 OECD 주요국의 2000~2007년 평균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0.68,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0.45로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이 매우 떨어짐.
-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등은 모두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음.
- 비교 수치의 기준인 미국의 경우 제조업(\$88,819/명)에 비해 서비스산업(\$74,236/명)의 노동생산성이 약간 낮으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

OECD 주요국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미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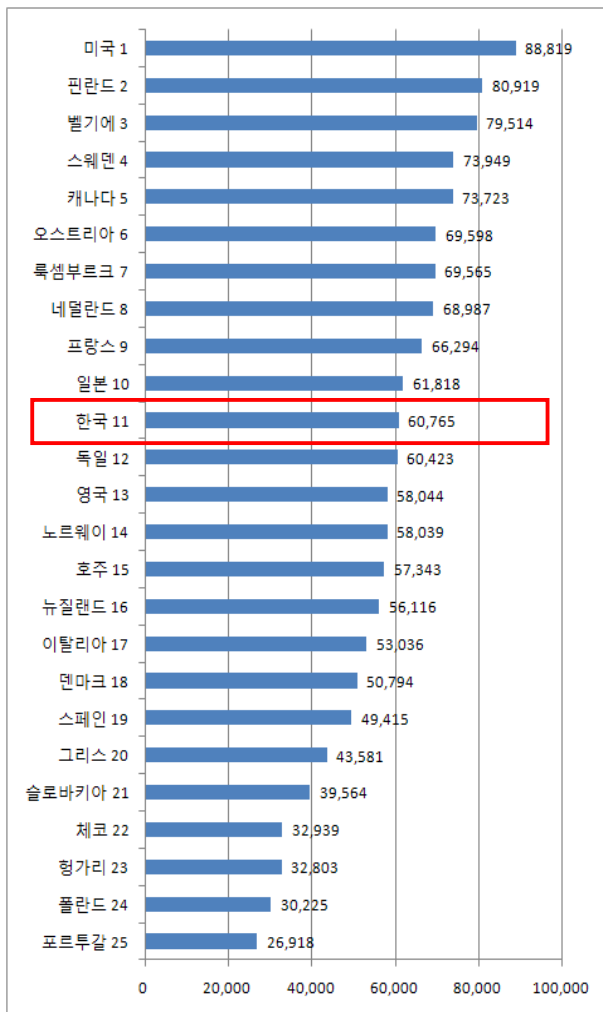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
전산업	0.61	0.89	0.78	0.77	0.73	1.20	0.81	1.00
제조업	0.68	0.75	0.68	0.60	0.70	0.78	0.65	1.00
서비스업	0.45	0.78	0.67	0.79	0.75	1.16	0.59	1.00

자료: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9), 지식경제부에서 재인용
 주: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2008년 기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000~2007년 평균
 노동생산성=(경상GDP/당해년PPP)/취업자 수

- OECD국가들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치로 비교해 보아도 2000~2007년 평균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60,765/명으로 전체 11위인 반면 서비스산업은 \$33,233/명으로 25개국 가운데 22위 수준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88,819/명)이 가장 높고, 서비스산업은 룩셈부르크(\$86,271/명)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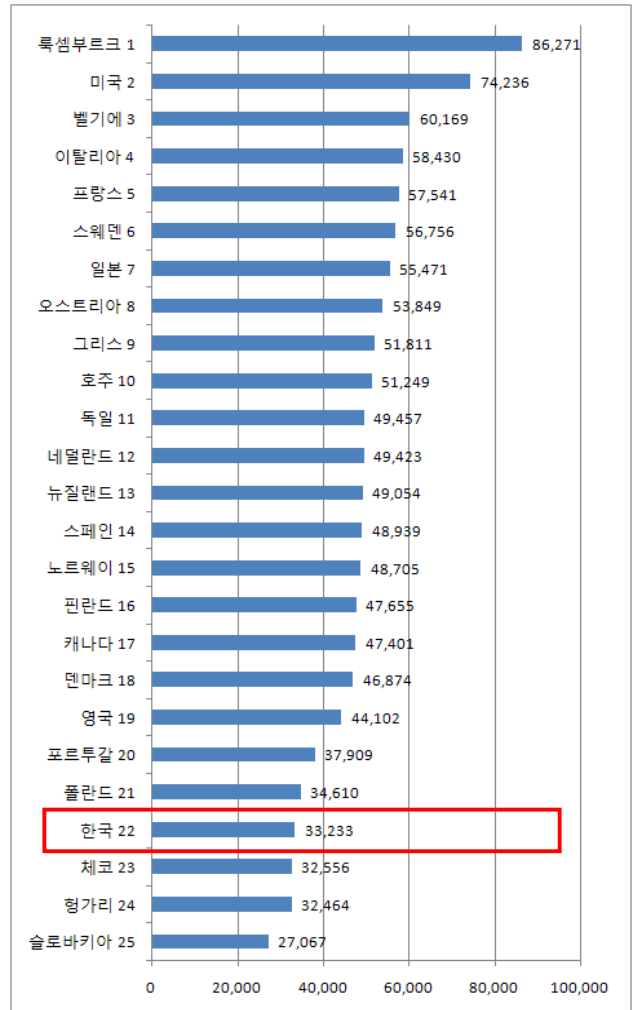
제조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US \$



서비스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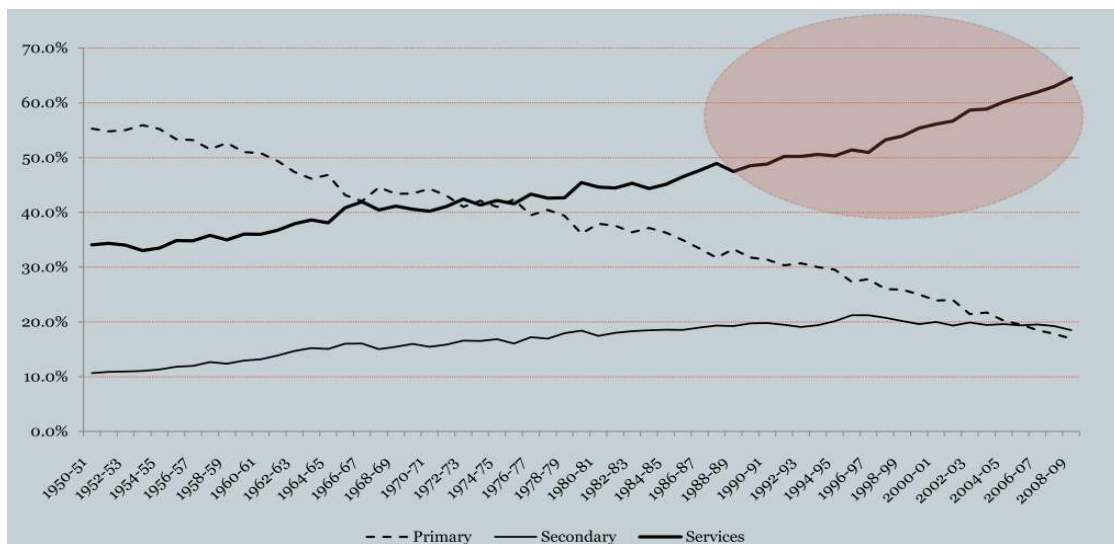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2009), 지식경제부에서 재인용
 주: PPP 적용, 2000~2007년 평균

III. 인도 사례와 비교

1. 인도 경제의 서비스화

- 제조업이 발달한 뒤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기존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서비스업이 먼저 발달한 인도
 -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Baumol(1967)의 ‘생산성 편향 가설’에 의하면 서비스화의 진전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격차에 따른 것
 - 생산성 편향가설은 소득증가에 따라 서비스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느린 생산성 증가 때문에 서비스재 가격이 오르고, 이 때문에 고용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봄.
 -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클 수록 서비스산업으로의 고용 이전이 가속화된다고 보며, 최근 한국의 서비스화 진전은 생산성 편향 가설과 일치하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 추격을 하는 국가들의 경우 생산성이 빨리 증가하는 2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이후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고용이 서비스산업으로 이동.
 - 그러나 인도의 경우 기존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산업 내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큰데다, 성장 기여도에서도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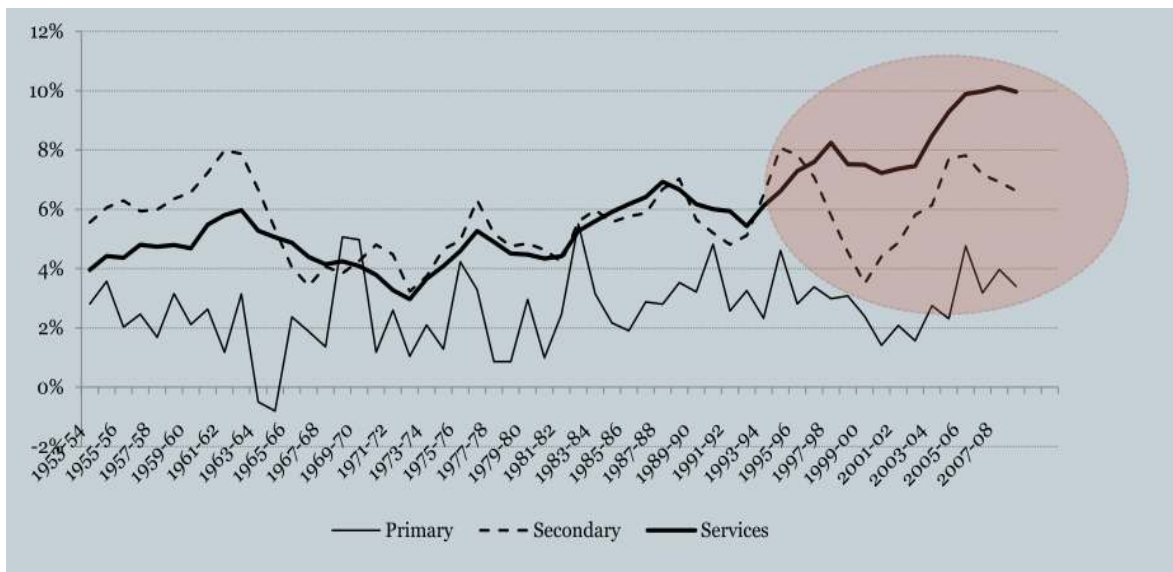
인도 각 산업의 GDP 내 비중



자료: 옥우석 외(2009) “인도경제의 급성장과 서비스산업”

- 인도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산업이 GDP의 40%를 돌파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도 GDP의 65% 정도를 차지
- 반면 제조업과 1차산업은 모두 GDP에서 20% 미만씩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 성장률 추이로 보아도 서비스산업의 5개년 평균값이 10%를 육박하는 반면, 제조업은 6~8%, 1차 산업은 2~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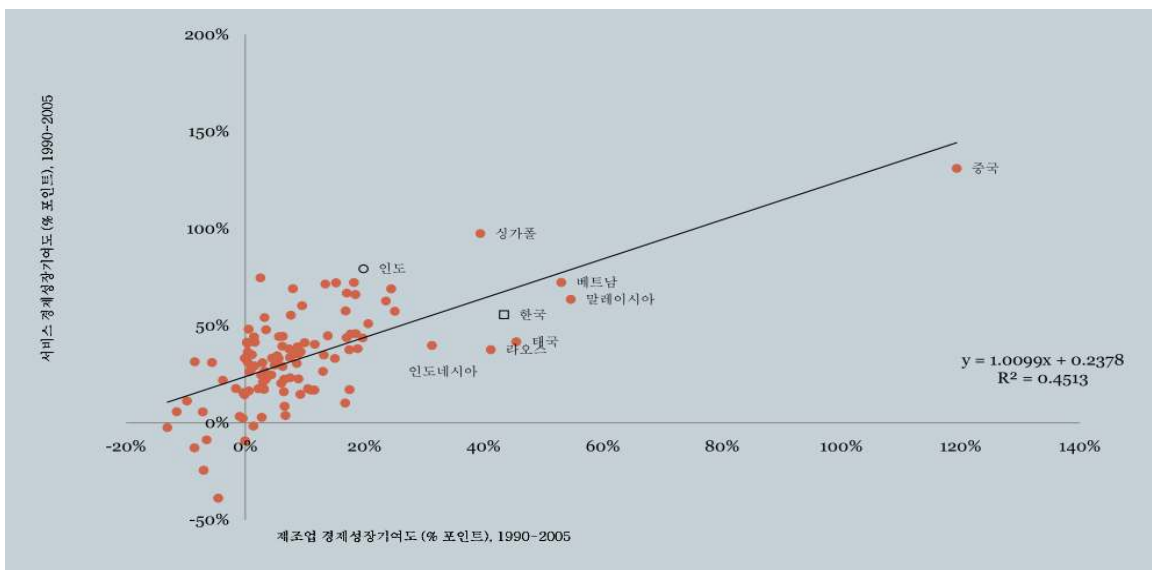
인도 산업별 성장률 추이 (5개년 이동평균)



자료: 옥우석 외(2009) “인도경제의 급성장과 서비스산업”

- 따라서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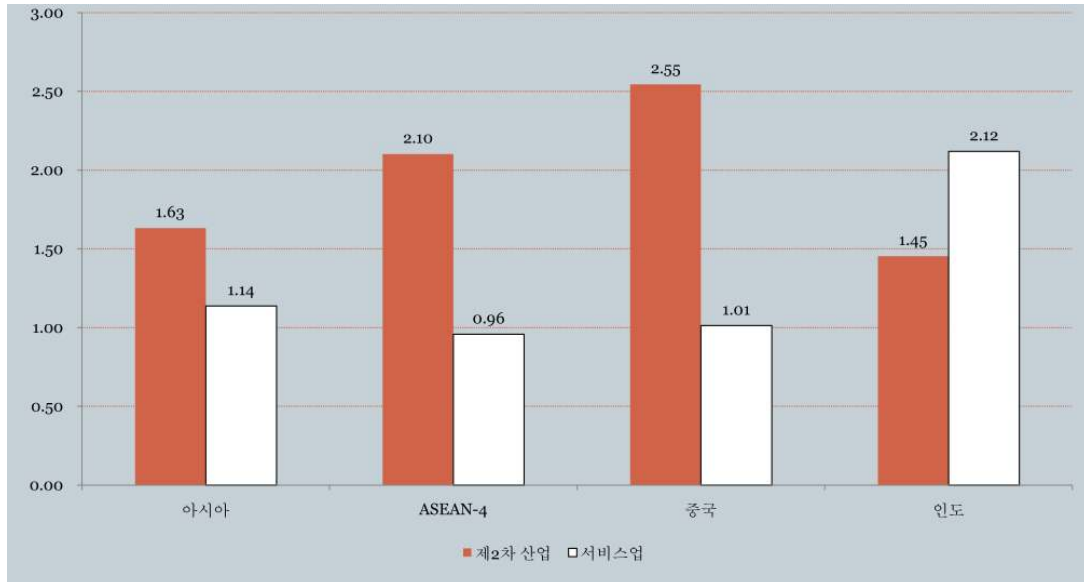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



자료: 옥우석 외(2009) “인도경제의 급성장과 서비스산업”

- 특히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인도의 서비스업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제조업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음.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비교



자료: 옥우석 외(2009) “인도경제의 급성장과 서비스산업”

2. 인도 경제 서비스화의 원인

□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 아웃소싱의 확산,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IT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비약적 발달을 이룸

- 인도 경제의 서비스화는 정보통신 서비스 및 콜센터 등과 같은 사업서비스의 아웃소싱이 큰 비중 차지
- 이러한 산업들은 제조업과 비교할 때 대규모 설비투자와 같은 초기 진입 비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인적자원 관리와 같은 새로운 숙련을 필요로 하며, 과학 집약적 성격이 약해 지식 접근 원천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인도는 수학과 공학을 중시하는 전통 아래 풍부한 영어 skill을 지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 특히 해외에 인도 기술자 그룹이라는 지식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 해외 지식을 습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장점도 지님.

□ 취약한 국내 수요 때문에 일찌감치 대외지향 성장전략 추구

- 특히 인도 정부의 경우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와 같은 교육기

관에 컴퓨터 과학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인적 자본 축적에는 일정 정도 기여하였으나, 정부 지출을 통한 수요 창출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었음.

- 민간에서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저조했으며, 하드웨어, 반도체 등 연관산업의 발전이 저조해 국내 수요는 매우 취약했음.
- 따라서 인도의 경우 여타 동아시아 신흥경제국들과는 달리 높은 투자가 필요없는 산업 특수적 우위와 영어능력, 수학과 공학 능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국가 특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과 연관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에서 조직적, 전략적 혁신을 추구한 것이 서비스화 진전 경로로 볼 수 있음.
- 즉, 인도의 사례는 제조업 성장 경로와 서비스업 성장 경로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부의 역할 등도 제조업 지원과는 달라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주로 논의되던 규제완화, R&D 정책, 세제지원 등과 같은 지원책이 서비스산업에서는 큰 힘을 받지 못하는 분야들이 상당 수 존재.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성격의 지원책이 함께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줌.
 - 이보다는 서비스산업의 기술이 주로 인적 자원 자체에 내재된다는 특수성을 반영해 인적자원의 육성 등에 더 초점을 가하는 것이 필요. R&D가 필요한 분야들이 있으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인적자원 교육 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특히 인도의 사례는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념과는 달리, 내수 기반과는 별도로 국제화된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줌

IV. 결론 및 시사점

- 전통적으로 내수산업으로 분류되어 온 서비스산업의 무역규모는 전체 수출입의 13~20% 수준
 - 고용에서는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유발 계수도 9.1명으로 제조업 2.7명보다 높음.
- 주요국과 비교할 때 서비스 업종 대부분의 경쟁력은 매우 낮음

- 전체 서비스 수지로 비교할 때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선진국의 서비스 수지는 높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은 서비스 수지 적자 기록
-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아도 2000~2007년 평균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60,765/명으로 OECD국가들 가운데 11위인 반면 서비스산업은 \$33,233/명으로 25개국 가운데 22위 수준

□ 서비스 수지는 연 100~200억 달러 적자를 꾸준히 기록, 상품 및 서비스 수지의 흑자폭을 줄여 옴

- 2004년 이후 상품 수지는 약 300억 달러 내외 흑자, 서비스 수지는 100~2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옴.

□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90% 이상을 사업 서비스 부문이 차지

- 2009년의 경우 전체 서비스 수지 172억 달러 적자 가운데 사업서비스(△158억 달러), 여행서비스(△38.9억 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38.6억 달러)의 적자폭이 가장 크며, 특히 사업서비스 분야의 적자폭이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91% 차지
- 특히 사업서비스 가운데에서는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의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는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 컨설팅, 법률 서비스 외에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까지 포함하는 분야로, 이 분야의 적자가 107억 달러에 달해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 172억 달러의 62%를 차지.
- 이렇게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진출 시장에 대한 글로벌 사업 서비스 이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이러한 해외 사업 관련 서비스는 수입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수출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음.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사업 서비스 이용 비중을 줄이고 이 분야의 국내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입이 발생하는 여가성 서비스 산업

(여행업, 개인·오락·문화 서비스 등) 들의 수출을 늘려 가는 것이
수지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제의 서비스화를 진전시켜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는 인도의 경
우,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 아웃소싱의 확산,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IT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비약적 발달을 이룸

- 인도 경제의 서비스화는 정보통신 서비스 및 콜센터 등과 같은 사업서
비스의 아웃소싱이 큰 비중 차지
- 인도의 경우 취약한 국내 수요 때문에 일찌감치 대외지향 성장전략 추
구했으며, 인도 정부는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와 같은 교육기관
에 컴퓨터 과학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인적 자본 축적에는 일정 정도
기여하였으나, 정부 지출을 통한 수요 창출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었음.
- 반면 인도는 수학과 공학을 중시하는 전통 아래 풍부한 영어 skill을
지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용이하
게 함. 특히 해외에 인도 기술자 그룹이라는 지식 집단이 존재하고 있
어 해외 지식을 습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장점도 지님.
- 인도의 사례는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념과는 달리, 오히려 내수 기반과는 별도로 국제화된 서비스를 지
향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인도의 사례는 제조업 성장 경로와 서비스업 성장 경로는 매우 다
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부의 역할 등도 제조업 지원과는 달라야 함
을 시사함.
- 서비스산업의 기술이 주로 인적 자원 자체에 내재된다는 특수성을 반영해
인적자원의 육성 등에 더 초점을 가하는 것이 필요. R&D가 필요한 분야
들이 있으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인적자원 교육 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한 시사점

- 현재 서비스 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 서비스의 경우 우리
나라 해외 투자와 연결되어 증가한 부분이 많아 단시간에 수지 개선이
어려움
-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의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 수지를 개선
시키는 것이 필요. 언어, 인력양성 등의 문제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어 긴

호흡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

- 반면 인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이 덜한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국제화된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는 더 유리할 수 있음
- 그러한 분야로 주목할 수 있는 분야가 **문화콘텐츠** 분야로, 최근 수출도 향상되고 있고,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사업서비스를 수출화하기 위해서는 언어 등의 장벽이 존재하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우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는 제조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수출 지원 프로세스도 제조업 지원책과 유사할 수 있음.
 - 반면 다른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지원책이 제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부각되어야 함.
- 이후 보고서에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표격인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음.